

맞벌이 가구 비율 광주 49%·전남 58%

전국 평균 46% 웃돌아 ...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필요 광주·전남 1인 가구 43만명 ... 40% 정도가 미취업 상태

광주·전남 혼인가구는 3년 연속 줄고 있는 반면 맞벌이 가구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지자체 등의 출산과 양육, 돌봄 등 통합적 가족지원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은 광주 48.6%, 전남 57.5%로, 전국 평균 46.0%를 웃돌았다. 특히 전남지역 비중은 제주(60.8%)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전국에서 열 번째로 높았고, 울산(37.8%), 부산(39.2%), 서울(39.4%), 대구(42.%)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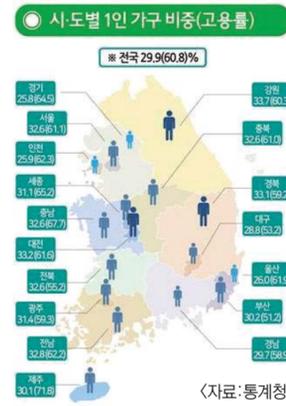
광주·전남을 포함해 7개 시도-도는 맞벌이 비중이 전년보다 높거나 같았고, 세종(-

2.4%포인트)·서울(-1.0%포인트)·인천(-0.8%포인트) 등 나머지 10개 지역은 맞벌이 비중이 낮아졌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3.7%(2016년)→45.5%(2017년)→47.7%(2018년)→48.6%(2019년) 등 꾸준히 올랐다. 전남지역도 2017년 55.3%에서 2018~2019년 57.5%으로 증가했다.

지역 맞벌이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광주 16만9000명, 전남 26만4000명 등 43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낸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 맞벌이 가구는 2016년 41만9000명에서 이듬해 41만4000명으로 5000명 줄어든 뒤 2018년 43만1000명, 2019년 43만3000명 등 2년 연속 늘고 있다.

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지난해 광주 34만8000명, 전남 45만8000명 등 8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0.4%(3000명) 줄었다.

유배우 가구는 지난 2016년 81만1000명 이후 2017년 81만명, 2018년 80만9000명, 2019년 80만6000명으로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자녀와 동거하는 취업여성 수는 광주·전남 각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녀 동거 여성의 고용률은 광주 58.1%,

전남 60.0%로, 전년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1인 가구는 43만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수는 광주 18만4000명·전남 24만2000명 등 42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000명(1.4%) 늘었다.

광주지역은 나홀로가구 18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광주 1인 가구 고용률은 지난해 59.3%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졌다.

광주 고용률은 전국 평균 60.8%를 밑돌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들었다.

전남 1인 가구 고용률은 62.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고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2018년 3000만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1인 가구의 60.8%만 일자리를 갖고 있었고 약 40%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1.24 (+4.51)	↓ 금리(국고채 3년) 0.827 (-0.019)
↑ 코스닥 753.23 (+1.59)	↓ 환율(USD) 1208.80 (-7.00)

효성화학 플라스틱 소재 '폴리케톤' 친환경 소재로 건설시장 공략한다

효성화학은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전력량계'의 소재로 폴리케톤을 처음 적용해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활용해 만드는 친환경·탄소저감형 고분자 소재로, 효성화학이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기존 산업소재 대비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 물성이 우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계측기기 제조업체 '그린플로우'와 함께 개발한 이번 제품은 기존 소재 대비 내연성이 우수해 화재에 강하고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두 배 이상 높아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폴리케톤 소재로 전력량계를 1만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약 1500kg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효성화학은 폴리케톤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6년 8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녹색 기술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효성화학은 이번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 고객사인 '그린플로우'의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주요 건설현장에 폴리케톤이 적용된 전력량계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후 다수의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효성화학은 지난해 삼성계기공업과 함께 수도계량기를 개발해 서울시 상

수도사업본부에 2만3000개를 납품한 바 있다. 폴리케톤을 적용한 수도계량기는 기존 제품 대비 동파에 2.4배 강해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친환경, 고강도 건축자재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10만개 이상 선주문이 들어오는 등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건축자재뿐 아니라 식판, 골프 티 등 일상 속 생활용품, 레저용 용품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효성화학은 지난해 9월부터 스타트업 기업인 'EGS, GK상사'와 폴리케톤을 적용한 친환경 식판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무해성을 인정받은 폴리케톤 식판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강도와 내마모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

폴리케톤을 적용한 골프티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품 대비 강도가 세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제품 출시 이후 2만개 이상 판매되며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건중 효성화학 대표는 "폴리케톤은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을 대표하는 핵심 소재로 건축자재를 비롯한 엔지니어링용 제품, 생활용품, 레저용품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웃렛 이월상품 처리 최대 80% 할인 판매

간접재난지원금 소비지에서 제외된 아웃렛들이 협력업체들의 이월상품 처리에 나섰다.

롯데아웃렛 광주월드컵점은 오는 25일부터 7월1일까지 '블랙야크' 아웃도어 이월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전 참여 브랜드는 블랙야크, 마모트, 블랙야크키즈이다.

1만원짜리 티셔츠, 1만5000원 바지 등 관련 브랜드 이월상품을 대폭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롯데아웃렛 광주수원점은 25일까지 1층 특설매장에서 '탁앤락' 인기 이월상품 300여 종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고 7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무더위 쉼터, 광주은행에 오세요" 23일 광주은행 직원들이 동구 대인동 본점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고객에 나눠줄 생수와 부채를 들어보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9월29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145개 모든 영업점에서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주요 농산물 가격 1년 전보다 30% 이상 급등

광주·전남지역 배추와 양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30% 이상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양동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22일 기준)을 조사한 소식지 '얼마요'를 발행했다.

광주전남본부 측은 채소류는 장마기간 공급불안정을 우려한 전문취급상인들의 물량확보로 오이(10개 7000원) 등 일부 품목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기타 대부분 채소류는 출하지역 확산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와 소비둔화로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과일류 중 여름철 대표적 소비품목인 수박 가격은 8kg 1통에 1만8000원으로, 1년 전(1만7750원) 보다 1.41% 올랐다. 반면 방울토마토 1kg 가격은 4000원으로, 성출하기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와 다양한 햇과일 출하로 인한 소비분산 등으로 전년보다 18.78% 내렸다. 배추 2.5~3.5kg 1포기 가격은 전년보다 50% 오른 4500원

으로 나타났고, 양파 1kg 가격도 전년보다 33.33% 오른 2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과일은 깻잎(100g 1250원·25% ↑), 상추(100g 600원·9.09% ↑), 사과(10개 3만 3000원·32% ↑) 등으로 나타났다.

삼겹살 100g은 전년보다 14.29% 오른 2160원이었고, 달걀은 30개에 4100원으로 7.19%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축협 '생축거래 전담센터' 한우 2002두 거래

코로나19 여파로 가축시장이 쉼 48일 동안 전남 '생축거래 전담센터'를 통해 한우 2002두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부터 19개 축협별로 '생축거래 전담센터'를 운영, 총 2002두를 거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는 총 14만1000두로, 한 달 동안 시장 1곳에서 평균 783~1200두 가량 거래됐다.

생축거래 전담센터는 농가가 입식 또는 매각을 신청하면 축협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해 심사 후 매매중개 및 대금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남지역에는 총 15개 가축시장이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 요일제 또는 지정일에 경매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8일 동안 휴장을 거쳐 지난 4월13

일부터 재개장했다.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축시장을 격려하기 위해 영암축산농협이 운영하는 '영암 가축전자경매시장'을 방문했다.

가축전자경매시장은 기존 손짓을 이용하는 수지경매와 달리 모바일 앱 등 전자경매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분석한 전남 지역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은 2018년 42.8%, 2019년 45%, 올 1분기 47.8% 등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김 본부장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증가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매 전 과정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